

소설 속 성폭력 재현 양상 연구

— 1990년대 여성작가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김미영(전북대)

〈목 차〉

- | | |
|---------------|------------------|
| 1. 들어가기 | 3. 성폭력 경험의 대처 양상 |
| 2. 성폭력의 재현 양상 | 4. 결론 |

1. 들어가기

한국 문학 작품에서 여성은 대개 폭력의 피해자로 묘사되어 왔다. 작품 속 여성 인물들은 남성 인물들에게 맞고 강간당하며 시대의 고통을 대변해왔다.¹⁾ 여성 인물이 시대를 대변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성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여성이 폭력의 피해자였다면 가해자로 묘사되는 인물은 남성이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이 남성과 여성으로 고착화된 데에는 사회에 내재해 있는 권력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

1990년대는 민주화, 경제성장, 탈냉전체제, 정보화, 포스트모더니즘의 유입 등으로 시대가 급변했던 시기이다. 또한 1997년 IMF의 영향은 사람들의 인식 태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사회 현상은 작가들의 인물 형상화에도 변화

1) 김양선, 『허스토리: 문학』, 새미, 2003, 103면 참조.

를 가져왔으며, 특히 여성작가들이 구현해 낸 남성인물들의 의식에서 내면화된 세계 인식 태도를 읽어낼 수 있다.

문학사에서 1990년대는 아버지의 서사, 남성의 서사가 위기에 처하는 시대였다. 양귀자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은 기존의 남녀 위계질서를 뒤집는 전복적인 사고를 통해 90년대의 시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²⁾ 또한 여성의 몸에 드리워진 아름다움의 신화를 깨는 그로테스크한 몸(천운영), 동성애처럼 생식기능과는 분리된 조형적인 성을 탐색하는 몸(이남희), 결혼 제도를 안팎에서 파열시키는 충동적인 여성의 몸(전경린), 사랑이라는 친밀한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성을 구가하는 여성(은희경) 등 급진적인 소재의 작품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작가들의 시도는 남성우위의 세계를 전복시키고자하는 여성들의 열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³⁾ 이처럼 90년대 여성 작가의 작품에서는 사적 욕망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이 늘었다. 그렇지만 현실 속 여성은 여전히 수동적인 삶 속에서 피해자일 수밖에 없었다. 본고에서는 여성의 몸에 대해 급진적으로 형상화한 작품보다는 실제 삶의 현장에서 피해자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몸에 주목한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특히 폭력에 의해 강제로 훼손된 여성의 몸에 대해 언급한 작품을 그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이를 통해 90년대 여성 작가 작품의 또 다른 측면을 조명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여성 작가들이 어떤 내면의식을 가진 남성 인물들을 성폭력 가해자로 재현해 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여성의 성폭력 피해를 다룬 작품에서 여성인물이 어떤 방식으로 재현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성폭력이 재현된 작품을 중심으로 강간통념이 남성들의 의식에 내면화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1990년대 사회적 상황과의 연관 속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가해자에게 전가되어 왔던 책임을 덜어낼 수 있으리라 본다. 작품에 재현된 성폭력 사건과 인물의 재현 양상을 통해 작품이 갖는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사회적 통념에 갇힌 남성, 여성은 자신들도 모르게 내면화된 통념을 자신

2) 김양선, 앞의 책, 135면.

3) 김양선, 앞의 책, 105면 참조.

들의 의지라 착각하며 행동한다. 그런 피해자와 가해자의 모습을 극명하게 드러낸 작품이 조정란의 「불란서 안경원」, 하성란의 「악몽」, 신경숙의 「배드민턴 치는 여자」, 권지예의 「사라진 마녀」이다.

성폭력에 대한 인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계몽주의 발전론이 지배적이었던 1970-80년대 한국사회는 산업화가 사회적 화두였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페미니즘과 여성학은 노동하는 여성의 권리 신장이 최우선 과제였다. 그러나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 관심의 대상이 사회에서 개인으로 구체화되었다. 여성억압의 원인을 자본주의 체제에 두고 그 체제의 변혁을 주도해 온 진보적 여성운동도 혼란을 겪게 되었다. 남녀 불평등의 문제를 무엇으로 규정할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진 것이다. 이후 여성학의 연구 주제는 1980년대 한국사회의 가부장제적 권위주의, 획일주의, 성차별주의를 비판했던 시선에서 여성의 성, 언어, 몸, 문화, 권력에 대한 재해석과 개인의 일상을 말할 수 있는 성으로 관심의 대상이 바뀌었다. 성폭력의 주제가 성과 몸으로 바뀐 것이다.⁴⁾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성폭력을 규정하는 의미 또한 개념화되지 못하고 다양한 범주에서 논의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논의된 성폭력의 사전적 의미는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손상 및 정신적·심리적 압박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한다. 이러한 해석은 성폭력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진다. 첫째는 법적인 관점에서 성폭력을 폭력 등을 수반한 성적 행위로 한정하는 협의의 성폭력이다. 둘째는 사회학적·여성학적 관점에서 성폭력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성과 관련된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의미하는 광의의 성폭력이다. 성폭력을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하면 협의의 개념으로 포섭하지 못하는 다양한 비동의적 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성폭력은 수치스러운 일 또는 정조의 침해가 아니라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성폭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피해자의 저항 여부가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일상생활 속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할 명분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한쪽이라도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성폭력으로 정의한다면 성폭력의

4) 변혜정, 「성폭력 피해구성과 그 의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04, 2-3면 참조.

범위는 지나치게 광범위해진다. 5)

그래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은 앞서 언급한 성폭력의 범위 중 협의의 관점을 지지한다. 즉 성폭력 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중 상대방의 반항을 억제하는 물리적·심리적인 힘을 가하여 범한 범죄와 그로 인해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고 정의한다.6)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으로 성폭력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다른 성폭력 피해는 처벌의 범위에서 벗어나고 만다. 성폭력을 행위에 대한 단순한 동의 여부로 규정하는 법을 적용할 경우,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관계 때문에 생기는 성행위는 성폭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성매매, 혼인빙자간음, 결혼 등과 같은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문제 외에도 사적인 관계에서 비밀비재하게 행해지는 성행위 또한 성폭력의 범주에 포함시켜 이해해야한다고 본다.7) 이런 이유로 본고에서는 성폭력의 적용 범위를 확대시켜 강제적 성행위 외에도 친밀한 관계 혹은 사적인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성과 관련된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묘사한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런 개념의 확대를 통해 기존에 성폭력을 재현한 작품의 연구 범위에서 배제되었던 작품까지 범위를 확장시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2. 성폭력의 재현 양상

2.1. 공포와 소통부재

자본주의 하에서 ‘남성’의 가부장적인 권력의 원천은 변화된다. 이전의 가부장제와 달리 자본주의 하에서 남성의 권력 원천은 노동력을 소유한 임금

5) 이현정, 『성폭력범죄의 양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010, 12면 참조.

6) 이현정, 앞의 논문, 13면.

7)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가해자와의 관계는 강간 및 강간미수의 85%가 이는 사람에게 의한 것이고, 심한 추행의 경우 20%가 이는 사람에게 의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이미정 외, 『청년층 섹슈얼리티와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009, 34면.

노동자라는 특성에서 나온다. 그 결과 경제력을 소유하지 못한 남성 다시 말해 돈을 벌지 못하는 남성은 가부장의 권력으로부터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⁸⁾ 가부장의 경제력이 곧 권력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1990년대 작품에 재현된 남성 인물들은 불구, 꼽추, 정신 이상자, 일용직 노동자 등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인물들이 다수 등장한다. 또 경제력을 소유하고 있어도 삶에 대한 목적의식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이는 1990년대 후반 경제 불황 등을 겪으며 삶의 목표를 상실한 무기력증이 사회전반에 작용했기 때문이라 본다. 그런 이유로 남성에게 여성의 몸은 유희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작품 속 인물은 그 현실을 반영한 인물들의 재현이라 볼 수 있다.

인간에게 있어 집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이다. 이런 의미에서 집은 개인이 육체적, 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듯 안전을 의미하는 장소는 생물학적 필요(식량, 물, 휴식, 번식)가 충족되는 가치의 중심지이다.⁹⁾ 또한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안정이 보장된다는 개념 외에 개인만의 내밀한 사적 영역이라는 개념까지 포함한다. 그런데 이런 장소가 더 이상 개인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때부터 집은 불안정한 장소로 전락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조경란의 『불란서 안경원』은 남성이 부재한 공적 영역에서 여성이 겪는 성적 억압과 공포를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은 남성이 부재한 여성의 일상에 ‘폭력성’으로 접근해오는 세계에 대해 보여준다. 그리고 이런 폭력적 세계가 여성에게는 끔찍한 공포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여성에게 접근하는 폭력성은 남성의 성적 폭력으로 나타난다. 유리 바깥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남자, 주인공을 ‘질척하고 음산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안과 원장, 한밤중에 방에 침입하려 한 괴한, 재수 시절 주인공을 성적 유희 대상으로 대했던 학원선생, 그리고 주인공의 곁을 떠난 ‘그’. 그들은 언제어디에서든 마주칠 수 있는 주변의 인물들이며, 세상의 폭력성을 표상하는 인물들이다.

외부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주지 못하는 장소가 된 집에 기거하는 인물은 안전한 장소의 상실감 때문에 매순간 불안에 떨게 된다. 특히 여성의

8) S. Walby, *Theorizing Patriarch*, 『가부장제 이론』, 유희정 역, 이대출판부, 1996, 제8장 참조.

9) Yi-Fu Tuan, *Space and Place*, 『공간과 장소』, 구동희·심승희 역, 대운, 1995, 15~17면 참조.

보호자로 표상되는 남성이 집을 떠나 부재해 있는 순간 그 불안은 증폭된다. 보호자가 사라진 순간 여성은 못 남성들의 성적 표적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이 소설의 남성 인물들은 신분이 낮거나 남편이 없는 사회적 약자의 섹슈얼리티를 ‘소유’나 ‘유혹’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이는 남성이 여성의 소유주라는 인식이 강하게 전제되어 있음의 반증이다. 지금까지 여성은 성적 공격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또 다른 남성에게 자신을 의지해야 했다.

그러나 여성은 성적 공격자들로부터 보호받는 것에 대해 실로 비싼 희생을 지불해야 했다. 즉 그들을 보호하는 책임을 맡은 남성들이(남편, 아버지, 오빠, 친척 등) 여성을 가재(家財)의 동산(動産) 정도로까지 격하¹⁰⁾시켰기 때문이다. 다른 남성으로부터 보호의 대가는 여성이 오직 한 남성을 위하여 자신의 정조를 지키고, 오직 한 남성을 위해 복종해야 하는 순종의 미덕이었다. 남성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동안 여성은 절대적으로 한 남성에게만 순결을 약속해야 했던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다른 남성이, 임자 있는 여성의 육체에 대해 저지른 범죄는 그 남성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끼친 범죄로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¹¹⁾

성적 공격자들은 여성을 ‘소유’ 혹은 ‘보호’해 주던 소유주의 부재를 계기로 여성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명분을 부여받게 된다. 특히 안경원의 공적인 공간은 감시가 허용되는 공간이다. 앉아서 손님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공간은 언제든지 내부로 침입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불안정하고 위험하다. 특히 밤이 되면 여성들은 밖으로 나가기 힘들다. 가해자는 낮보다는 상대적으로 감시의 시선이 없는 어두운 밤을 틈 타 언제든지 여성의 집으로 침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은 자신의 집에 있으면서도 어디서 누군가가 보고 있는 것 같은 감시의 시선을 느낀다. 여성은 집에서든 통제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비인후과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다. 잠을 자려고 베개에 머리를 물을 때면 한쪽 귀에서 덜컹덜컹 기차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매일 밤 귓속으로

10) Brownmiller, S., *Against Our Will: Men, Women and Rape*, 『성폭력의 역사』, 편집부 역, 일월서각, 1990, 20면 참조.

11) Brownmiller, S., 앞의 책, 20~21면 참조.

기차 한 대가 회차점도 없이 굴러다녔다. 그가 탄 기차일 거라고 생각했다. 환정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가 가게 뒤편에 방을 만들면서 방문이라고 달아놓았던 새시문이 덜컹거리고 짐승 같은 검은 그림자가 보였을 때, 나는 벌떡 일어났다. 기차가 사라졌다. 꼭 필요한 가재도구를 제외하고 방안은 두 사람이 눕기에도 비좁은 그런 공간이었다. 두려움에 사지를 떨면서 나는 소리를 질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턱 막힌 가슴을, 옷 앞섶을 부여쥐고 나는 벌벌 떨고만 있었다. 문이 열린다고 생각 한 순간, 나는 어머니 자궁에서 처음 빠져나와 그 환하디환한 빛에 놀라 울음을 터뜨린 공포로 그 질겁할 듯한 두려움으로 서른한 살, 온몸의 핏줄을 모아 소리쳤다.

사람 살려!

덜컹거림이 멈추고 부엌을 통해서 뒷마당으로 후다닥 도망치는 놀란 발짝소리가 들렸다. 천 년 같은 시간이 지났을까……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부엌에서 뒷마당으로 통하는 길이 어둡고 낯설어 보였다. 허름한 문고리가 떨어져나가 있었다.¹²⁾

어느 날 밤 그녀가 혼자임을 안 누군가가 그녀의 방에 침입하려 시도한다. 예기치 않은 방문자/침입자의 등장은 소리를 통해 여성에게 공포심을 자극한다. 이렇듯 남성의 부제로 혼자 살아야 하는 여성은 경제적 고통과 함께 성폭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은 혼자인 여성이면 누구나 쉽게 범할 수 있는 존재란 인식이 근저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¹³⁾ 혼자된 여성은 남성에게 육체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는 성폭력이 신체적 약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다.

또한 여성의 주변 남성들은 자신들의 경제 자원을 수단으로 여성에게 접근

12) 조경란, 『불란서 안경원』, 『불란서 안경원』, 문학동네, 1997, 318~319면.

13) 여성은 법적인 지위의 측면에서도 독립적 개인이 아니었으며 이것은 19세기 말까지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와 남편은 여성의 법적 보호자였고, 여성은 이들의 후견 하에 놓인 아이와 같은 처지였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강간은 결코 여성의 소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며 희생자(여자)의 아버지나 남편의 소유를 침해한 죄로 간주되었고, ‘처녀성’의 강탈은 이러한 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원칙이었다. ‘순결성’이 여성 자신의 소유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범정은 희생자의 고통보다도 후견인(남성)의 고통을 더 염려했다. 결국 여성이 받은 피해는 결코 여성 자신의 것이 아니었고 이러한 논리에 따라 희생자가 창녀일 경우 강간은 성립되지 않았다. 정인경, 『성폭력과 성적 차이의 페미니즘』, 『페미니즘 역사의 재구성-가족과 성육을 둘러싼 쟁점들』, 공감, 2003, 188면 재인용.

한다. 이들의 접근 방법에는 여성에 대한 배려는 없다.

인사를 나눈 뒤 그는 요즘 장사가 잘 되느냐, 뭐 그렇게 물었을 것이다. 나는 우선 가계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그럭저럭 먹고살 만하다고 대꾸했다. 스위스 안경원과 계약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화자들의 처방전을 내 가게로 보내줬다고 말하며 그는 조금 웃어 보였다. 나는 어쩐지 입끝을 실룩거리며 웃는 그의 웃음이 불결해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한 뒤 나는 엽차를 한 모금 마셨다. 의자등받이에서 몸을 떼어내며 그가 이번주는 휴무일 텐데 시간이 있느냐고 물었다.¹⁴⁾

위의 인용문은 여성이 생계를 위해 공적인 영역에 진입했을 때 여성의 몸을 대가로 요구하는 사회의 불합리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도 보여준다. 안과 원장으로 표상되는 90년대 상류층 남성 또한 홀로된 여성에게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수단으로 성적 억압을 가하는 인물을 재현한다. 그의 의식에는 혼자인 여성에게는 쉽게 ‘질척하고 음산한’ 눈길을 보내도 되며 자신의 의도대로 여성을 희롱해도 된다는 사회적 통념이 내재해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여기서 남성은 여성을 단지 유희의 대상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그의 의식 속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여성에게 호의를 베푸는 성적 욕망만 존재할 뿐이다.

『불란서 안경원』¹⁵⁾은 경제적 수준은 열악하지만 경제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해나가는 여성상이 화자로 등장한다. 그러나 경제력 없는 여성은 성폭력의 위협으로부터 끊임없이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부담까지 안고 있다. 다음에 언급할 『악몽』에는 성폭력 피해를 통해 드러난 아버지의 무기력함이 ‘집’이라는 가부장적 공간의 와해로 나타난다. 또한 『악몽』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인식 태도의 차이로 인한 소통부재가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아버지가 존재하는 집은 개인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장소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존재함에도 성폭력의 위협으로부터 개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못

14) 조경란, 앞의 책, 316면.

15) 『불란서 안경원』에는 여성이 육체적으로 성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장면이 전면에도 대두되진 않는다. 그렇지만 성폭력의 개념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성과 관련된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의 범위에서는 충분히 성폭력 상황이라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한다. 하성란의 『악몽』에서는 아버지라는 보호자가 버젓이 동거하고 있음에도 문을 열고 들어와 여성에게 성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가 등장한다. 이런 상황은 여성의 법적 후견인인 아버지(남성)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이다. 즉 남성의 성적 욕망이 가부장제의 법적 후견인보다 우선시 되는 상황이다. 이는 가부장제의 권위에 대한 도발이라고 볼 수 있다.

작품 속 집은 존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안전망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실제로 여자가 성폭행 당한 다음날 아침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려 해도 아버지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침입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쭈은 소리 마라. 내가 있는 한 우리 집은 안전하다. 그건 꿈이다. 더 이상 아무 말 말자.’라는 단호한 말로 여자의 지난밤은 없던 일이 되고 만다. 여성은 아버지의 권위에 어떤 반박도 하지 못한다.

이때 아버지의 아니다(non)는 거론될 필요도 없고, 따짐을 받을 필요도 없다. 즉 이성적인 존재에게는 사물의 강한 힘 앞에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는 것 이외에는 달리 선택할 길이 없다. 왜냐하면 그가 말한 것은 항상 진리였기 때문이다.¹⁶⁾

그 일이 있는 후 아버지는 여성과 어떤 일로도 소통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조신하게 집에 기거하다 시집가라는 말로 그녀의 행동에 제약을 가한다. 이때 집은 여성을 외부의 공포로부터 보호하는 공간이 아닌 감금의 장소로 변한다. 집의 이중성이 억압을 가할 때 여성은 집에서 탈주를 감행한다.

주말이면 아버지의 차를 몰고 서울로 갔다. 그곳은 여자에게 눈길을 줄 사람들이 없었다. 거리가 훤히 내다보이는 카페의 유리창 앞에 앉아 길 가는 사람과 눈을 맞추면서 담배를 피웠다. 선홍색 루주를 바르고 친구들을 따라 물이 좋다는 나이트클럽을 찾아 한강을 건너기도 했다. 말을 걸어오는 남자와 술을 마시고 스스럼없이 춤을 추었다. 모든 남자들에게서는 바람냄새가 났다.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술이 깨면 집으로 돌아왔다. 자명종은 더 이상 여섯시에 울리지 않았

16) Pierre Bourdieu, La Domination Masculine, 『남성 지배』, 김용숙 역, 동문선, 2003, 102~103면 참조.

다. 하지만 여자는 새 건전지로 바꿔 끼우지 않았다.¹⁷⁾

조르쥬 비가렐로는 강간이란 난폭함의 결과라는 점에서 다른 폭력에 의한 상처와 동일하지만 그 상처가 희생자에게 수치심을 각인시키고 인격을 훼손시키며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인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는 점에서 또다른 상처를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그에 비해 폭행을 한 자는 이러한 인식 자체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욕망을 해소하는 그 순간 이를 망각하고 만다는 것이다. 희생자는 바로 이 더럽혀졌다는 생각 때문에 입을 다물게 된다.¹⁸⁾ 또한 성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방황한다.

그녀에게 성폭력을 행사했을 일꾼들에 대한 묘사는 사회적 위계질서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하다. 경제자본을 소유하지 못한 남성에 대한 표상이 일꾼들을 통해 형상화되고 있다.

일꾼들에게서는 다 바람냄새가 났다. 일꾼들은 잇속이 다 드러나도록 하품을 해댔다. 구리텃텃하나 입냄새 끝에 술냄새가 묻어나왔다. 그들은 일이 끝난 오후에 읍내에 나가 자정이 지난 후에야 어슬렁거리며 막사로 돌아와 잤다. 그들 중 몇몇은 날이 새기 직전에서야 구겨진 옷을 걸쳐입고 막사로 돌아온다. 흰자위가 충혈되고 머리카락과 모공 속에 뱀 살코기 탄 냄새와 여자들의 분냄새가 채 가시지 않았다.¹⁹⁾

그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찾아 돌아다니는 바람 같은 존재이다. 그런 이유로 여자에게 남자는 ‘바람냄새’로 인식된다. 바람냄새를 몰고 다니는 그들은 ‘술과 담배에 찌들고 햇빛에 탄 피부는 재생용지’ 같이 거칠다. 그들의 이미지는 ‘더럽고 낡은 운동화와 군화’로 표상되며, 그녀의 아버지에게 고용되어 일거리가 있을 때에만 경제 능력을 부여받는 계층이다.

작품 속 일용직 노동자로 표상되는 남성은 여성을 언어와 신체적 폭력으로 희롱하는 인물이다. 자신의 삶에 충실하지 않은 남성은 상대인 여성의 삶에

17) 하성란, 앞의 책, 82~83면.

18) Georges Vigarello, Histoire du viol, 『강간의 역사』, 이상해 역, 당대 2002, 41~42면 참조.

19) 하성란, 앞의 책, 71~72면.

대해서도 존중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여성의 성욕이 성폭력을 당하는 꿈을 꾸게 만들었다며 여성에게 책임을 돌린다.

“사내가 다가와 어깨를 움켜쥐었다. 손가락이 살을 파고들었다. 사내의 손가락이 피아노 치듯 움직이며 간지럼을 태웠다. 넌 꿈을 꾸 거야. 처녀들은 곧잘 그런 꿈을 꾸다지? 일종의 예행연습이랄까?”

‘충고 한마디 할까? 다신 막사 근처나 배나무 아래에서 어슬렁대지 마. 그치들은 단순한 사람들이거든. 니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오해를 할 거야. 이층 창문을 타넘는 건 식은 죽 먹기야. 그럼 이번엔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테니까.’²⁰⁾

남성은 여성이 움직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신을 유혹하기 위해 주변을 ‘어슬렁대’는 것으로 인식한다. 소위 여성이 꼬리를 치고, 정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에게 성적인 행동을 가한다는 것이다. 여성이 움직이는 것도 ‘꼬리 치는 것’으로 인식하는 남성들에게 여성의 모든 행동은 유혹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즉 그 대상을 가벼운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불란서 안경원』, 『악몽』속 남성인물들은 성폭력 가해자들의 특성을 대변한다. 또한 남성들이 여성에게 갖는 사회적 통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인물들이다. 이런 남성 인물들에게 비친 여성은 강간통념²¹⁾에 의해 규정된 여성으로 표상될 수밖에 없다.

특히 여성은 집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위해 밖으로 나왔을 때도 성폭력의 위협으로부터 결코 안전할 수 없음을 작품을 통해 살펴보았다. 남성이 부재한 상황에서 여성은 생계유지를 조건으로 공적 공간에서 성적 위협을 받는다. 또한 일상에 상존하는 성적 위협 때문에 삶 자체가 공포일 수밖에 없는

20) 하성란, 앞의 책, 81면.

21) 강간통념(rape myth)은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신념이라 말할 수 있다. 강간통념은 남성들의 의식에 각인된 사고방식으로 남성들이 여성을 성적으로 억압함에 있어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강간통념이 성폭력 가해자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한 연구는 꾸준히 있어왔다. 이석재, 『강간통념척도의 개발과 타당성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13권 2호, 1999, 이석재, 최상진, 『강간통념수용도에 따른 성행동, 성폭력 및 성폭행 사건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15권 1호, 2001, 이진호, 강혜자, 『강간통념 수용도 성역할 태도 및 음란물 접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1권, 3호, 2005.

상황이 재현되었음을 확인했다. 남성이 존재하더라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간 또한 집안으로 침투하는 가해자로부터 여성을 지켜낼 수 없다. 집안이 공적인 역할까지 전담하면서 아버지의 보호망이 약해진 틈으로 가해자가 침입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남성이 부재하는 여성의 몸은 강간 통념을 내면화하고 있는 가해자들에게 쉽게 침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의 몸에 각인된다. 두 작품을 통해 남성 인물이 어떻게 작품에 재현되는지, 이때 희생자로 전락하는 여성은 어떤 모습으로 재현되는지 살펴보았다.

2.2. 여성 정체성의 상실

다음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행되는 성폭력을 통해 남성인물들은 어떻게 재현되는지 살펴보고, 성폭력 경험이 여성의 정체성 상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다른 공간과 달리 도시는 타자와의 만남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간이다. 근대 이후 여성의 몸은 집안에 갇혀 있기 보다는 외부 활동을 통해 공개적인 만남에 노출되게 되었다. 여성의 몸은 가정 내에 존재할 때에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지만, '집 밖'은 더욱 폭력에 적나라하게 노출될 위험이 크다.

통상 성행위는 남자가 여자를 욕망하는 데서 시작한다. 여자는 남자의 욕망의 대상이다. 그런데 사회적 통념은 여성이 치장하고, 옷을 벗는 행위 자체는 스스로가 욕망의 대상을 자처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 본다. 또한 사회적 통념은 남성들에게 욕망의 대상으로 비취지기를 소망하던 여성이 정작 남성이 다가가면 싫은 기색을 보인다고 인식한다. 도피, 수줍은 태도를 취함으로써 남성들의 욕망을 더 자극한다고 보는 것이다.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들의 접근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이는 남성들을 더 자극하기 위한 교태정도로 치부된다.

그녀는 갑자기 참을 수가 없어서 발딱 일어나 재빠르게 최에게서 달아난다. 하지만 곧 뒤따라 나온 최에게 그녀는 손목을 억세게 붙들린다. 최는 그녀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나운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다.

잘못했어요!

뭘?

그녀는, 오늘 처음으로 정신이 번쩍 든다. 최가 뿔어내는 사나움을 그녀는 용케도 알아낸다.

네가 뭘 원하는지 나는 알아!

아니에요, 틀렸어요.²²⁾

위의 인용문처럼 여성이 먼저 남성에게 전화를 건다는 것에 대해 남성들은 철저히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여성이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해도 남성은 여성의 부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성들이 성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남성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긍정적 신호로 판단한다고 한다. 여성이 먼저 데이트를 신청했거나, 데이트 비용을 남성이 지불하게 하거나, 여성이 남성의 아파트에 동행할 경우 남성들은 여성이 기꺼이 자신과 섹스를 하려고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²³⁾ 이처럼 ‘최’도 여성이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 하나만을 근거로 그녀가 먼저 자신을 유혹했다고 단정한다. 그리고 여성이 더 이상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끝까지 이행한다. 이 경우는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이며 곧 성폭력으로 간주할 수 있다.²⁴⁾

그녀는 ‘소매가 없는 자주색 실크 블라우스 아래 좁쌀만한 소름이 돋은’ ‘팔’을 쓰다듬으며 관심을 보였던 ‘사진기자 그’를 만나러 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화원 단골 최’에게 전화를 건다. ‘마흔 살쯤 되어 보이는 최’는 평소에 ‘그녀가 예뻐서 못 견디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관심을 보이던 인물이다. 그녀는 ‘사진기자 그’로 인해 자신도 몰랐던 욕망을 품게 되었지만 그는 이미 그녀를 잊은 지 오래다. 그런 ‘그’ 대신 최를 만나지만 그녀는 곧 후회한다.

22) 이남호 엮음, 『메드민턴 치는 여자』, 『옛우물에서의 은어남시』, 작가정신, 2004, 437면.

23) 이미정 외, 『청년층 섹슈얼리티와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009, 28면 재인용.

24) 2003년 7월 일리노이주는 형법 개정을 통해 ‘처음에 성교 혹은 성적 접촉에 동의한 사람이 성교 혹은 성적 접촉 도중 동의를 철회하면 어떠한 성교나 성행위에도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며 이에 반하는 행위를 3급 강간죄로 규정하였다. 이미정 외, 앞의 책, 53면 재인용.

제발……나를 놔줘요, 제발.

왜 나를 찾아왔지? 그런 나태한 표정을 짓고서 말이야. 그리구선 지금은 놔달라고? 사람을 잘못 봤군. 내가 그래줄 것 같은가? 자자. 긴장을 풀라고, 너무 긴장하면 재미없어.²⁵⁾

남성은 자신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폭력임에도 여성이 먼저 전화를 하고, 찾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여성이 성관계에 동의했다 믿는다. 그러면 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남성은 성폭력의 심각성을 약화시킨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정체성은 철저히 무시된다.

네가 달아나지만 않았다면 그럴 양이었지. 우선 향기로운 저녁을 먹고, 술을 한잔 곁들이고, 강변이 내려다보이는 곳으로 춤을 추러 가고, 그렇게 부드럽게 순서를 밟을 양이었지. 하지만 네가 급해 보여서 말야. 이렇게 거칠게 바뀌어버렸구나. 이것도 괜찮잖니. 조금만 협조해준다면 더 좋겠는데……오늘은 이렇게 반항해도 내일은 너 스스로 전화할걸, 여기에서 나를 기다리겠다고 말야……니 얼굴에 써어 있어. 나 죄 없어. 다만 니가 말 못 하는 걸 내가 알아서 해주는 것뿐이야,……자 그러니 좀 얌전히 굴어.²⁶⁾

남성은 ‘네가 급해 보여서’라는 오인을 성폭력의 근거로 내세우며 여성을 성폭행한다. 또한 강제적 성행위가 진행될 때는 여성이 거부의를 분명히 밝혀도 남성은 그 말을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진정으로 남성적인 남성은 여성의 ‘아니오’를 ‘아니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통념이 작동하²⁷⁾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의 자의식은 철저히 무시된다. ‘최’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그녀는 자신을 ‘헛껍데기’라고 생각한다. 남성에게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여성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어떤 경험에 대해 망각하지 않고 기억에 남는 인상을 각인시킬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 것이다. 칼이나 돌로 몸에 흔적이나 상흔을 남겨 되돌릴 수 없는 흉터를 만들면 몸은 기억의 흔적을 지니게 된다. 몸이 곧 기억

25) 이남호 엮음, 앞의 책, 438면.

26) 이남호 엮음, 앞의 책, 438면.

27) 이미정 외, 앞의 책, 28면 재인용.

인 것이다. 상처와 흉터로 된 몸의 기억은 정신의 기억보다 신뢰성이 높다. 그래서 몸에 새겨진 기억은 지울 수 없으며²⁸⁾ 그 경험은 잊을 수 없는 상흔을 남긴다.

너의 회디뮴 나신은, 서투른 문신자국과 담뱃불로 지저놓은 흉측한 흉터들로 얼룩져 있었다! 젓가슴 밑에서부터 그건 아래로 내려가면서 더 심해졌다. 용을 새기려 한 건지 뱀을 그리려 한 건지 조잡한 솜씨였다. 마치 공중변소의 푸른 낙서처럼 악의가 철철 넘쳐났다. 나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조금 전까지 내 손길과 입술에 참을 수 없는 갈증을 주던 부드러움의 실체가……²⁹⁾

작품 속 여성인물은 어릴 때 낯선 사람들에게 납치된 경험이 있다. 그런데 그 경험은 그녀의 몸에 새겨진 문신에 의해 지울 수 없는 기억이 돼 버렸다. 몸의 문자는 지울 수 없는 문신만큼이나 강력한 기억력으로 여성의 정체성 형성에 깊이 관여하게 된다. 그 이후로 그녀는 자신의 몸이 여성으로 인식되기를 거부하고 남성의 몸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여성이 옷으로 자신의 몸을 감춰도 남성의 시선은 이미 여성의 옷을 벗기고, '상상 속에서나마 분장을 시켜' 자신만의 성적 대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남성은 시선만으로도 여성을 성적으로 탐하고, 자신만의 상상을 동원하여 '사랑이라고 믿으며 혼자' 애를 태우기도 한다.

그래도 잘 익은 네 귤볼을 훑쳐보는 설렘. 험령한 네 남방 속의 가슴께 볼륨과 청바지 속의 단단한 허벅지살에 슬근슬근 눈을 주면서 바라보는 즐거움은 아주 감칠맛 나지. 볼수록 넌 매력적이었어. 짧은 머리칼 속의 잘생긴 뒤통수, 유연하게 뻗은 흰 목덜미, 삶은 계란을 까놓은 듯한 말장고 축축한 작은 얼굴. 단아한 이목구비. 꾸미지 않은 입성이지만 네 타고난 미모는, 오히려 그로 인해 보석처럼 빛나는 듯했어.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어느 광고문안처럼, 그래 산소 같은 여자였지.³⁰⁾

28) Aleida Assmann, *Erinnerungsraume: Formen und Wandlungen des kulturellen Gedachtnisses*,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변학수·채연숙 역, 그린비, 2011, 333~337면 참조.

29) 권지예, 『사라진 마녀』, 『꿈꾸는 마리오네뜨』, 창작과비평사, 2002, 287면.

30) 권지예, 앞의 책, 249면.

여성 인물은 자신이 여성으로 비취지기를 거부하고 있지만, 남성은 끊임없이 여성의 몸을 탐닉하고 있다. 또한 자신만의 환상을 끌어다 ‘훑쳐보는 즐거움’을 만끽하기도 한다. 이 장면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길들여진 시선으로 여성을 바라보는 남성의 모습이 재현되어 있다. 이때 남성의 시선에 의해 재현된 여성은 실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남성의 통념에 의해 재현된 표상이다.

남성인물이 여성인물을 바라보는 관음적 시선은 여성을 독립된 개체로 인식하지 않고, 남성의 판타지 속 여성으로 인식한다. 남성의 시선에 포획된 여성은 이미 남성의 시선 속에서 성적 탐닉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남성에게 여성은 욕망을 자극하는 대상인 것이다.

또한 몸은 지배적 사회관계가 각인되어 있는 곳이다. 남성의 힘에 의해 성폭력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몸은 남성 지배 권력에 의해 억압당하는 개체로 표상된다.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는 인물은 전적으로 여성이다. 남성은 죄의식조차 갖지 않고, 그 남은 상처는 전적으로 여성의 몫이다.

대부분의 성폭력 가해자는 남성이다. 이때 여성이 가장 큰 피해자라는 점에서 남녀관계의 권력구도가 형성된다. 때문에 남성의 성적 욕망의 해소를 위해 친밀한 관계를 악용하는 그 자체에 또다시 권력이 작용한다.³¹⁾ 대부분의 작품에서 지식인 남성들은 이상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여성을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취급하며 성욕을 채우는 모습들에서는 가부장적 폭력성과 이중성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미 사회는 90년대로 진화했음에도 남성들의 의식에는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처구니없게도 경찰이 형은 내가 순결한 처녀인 줄 알아. 이런 우스꽝스런 아이러니가 버젓이 일어나는 게 인생이야. 만화가 아니라구. 형이 논문 마무리 작업을 도와달라고 해서 간 저녁에 마침 정전이 되었더랬지. 기다려도 불은

31) 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여성 4명 중 1명이 강간이나 강간미수의 피해자인데, 이들 중 84%가 가해자를 알고 있고, 57%는 데이트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람에 의한 강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친구, 이웃, 같은 과목을 듣는 학생, 직장동료 등 일상적으로 아는 사이이다. 혹은 지속적으로 데이트를 하는 사이이거나 이전에 사귀던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이미지 외, 앞의 책, 23면 재인용.

들어오지 않고, 그는 아주 잘된 기회라 생각했겠지. 갑자기 내게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자기 욕구를 채우고 말았어. 그 형이 세든 집의 마루에선 식구들이 모여 초를 밝힌 채 떠들썩하게 저녁을 먹는 중이었는데, 내가 반항하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도 모두들 못 들은 척하더군.(중략) 그 형이 아주아주 감동스런 얼굴이 되어 내게 뭐라구 했는지 아니? 말할 수 없이 고맙구나. 네가 순결한 여자여서, 라구.³²⁾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했을 때 여성은 강하게 자신의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는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에 급급하다. 이때 성폭력은 남성들의 소유욕망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작품 속 성폭력 행위에도 재현된다.

지금까지 남성에 의해 자행되는 성폭력 앞에서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때 남성은 사회적으로 지식인이라 규정된 계층의 인물들임에도 성적 도덕성을 지키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오히려 여성의 몸을 자신들의 유희의 대상으로 점유하려는 행위만 존재할 뿐이다. 이때 드러난 성폭력은 위협과 공포를 수단으로 남성의 지배와 여성의 종속이라는 전체적인 구조를 유지시키고 재생산한다.

3. 성폭력 경험의 대처 양상

2장에서는 성폭력이 재현되는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성작가의 작품에 등장하는 가해자는 다양한 계층의 남성들로 묘사되어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로 묘사된 여성들은 성폭력의 위협으로부터 강한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가해자들과의 소통부재를 경험하기도 했다. 그리고 성폭력 경험 때문에 정체성을 상실하기도 했다. 3장에서는 ‘여성’의 몸이 남성인물들에 의해 성적으로 유린되는 과정 속에서 여성들의 의식은 어떤 상태로 표현되는지 살펴보고, 성폭력 이후의 상황에 여성인물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990년대는 자본주의 사회가 어느 정도 진화했음에도 여성들의 사회활동은 극히 제한받고 차별받았다. 특히 가부장제는 여성에게 결혼을 최고의 이상

32) 권지예, 앞의 책, 288~289면.

으로 삼도록 강요했으며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고, 성역할을 나눔으로써 상하 지배 관계로 구분하며 여성을 억압한다.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 속에서 남성의 부재는 여성에게 또 다른 억압이다. 90년대는 산업 노동자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여성노동자의 급증도 사회적 흐름 중 하나였다. 이는 작품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불란서 안경원』에는 경제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해나가는 여성 인물이 등장한다. 그리고 그녀의 경제활동을 돕겠다는 빌미로 여성의 성을 거래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등장한다. 남성은 공적인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경제자본을 수단으로 여성의 몸을 끊임없이 탐하려 한다. 이때 여성은 그의 요구를 뿌리치고 독립하려 한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자녀 교육과 가정 관리의 역할만을 부여받았던 여성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남성의 역할을 부여받게 됨으로써 여성은 고통을 겪게 된다. 여성이 가정을 지탱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여전히 여성을 보호받는 존재로만 인식한다. 여성들은 오랜 시간 여성의 삶을 살도록 훈련 받아 왔고,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여성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인 양 믿어버리는 소위 ‘터득된 무력감’³³⁾에 자신들을 결정지어 버렸다. 이로 인해 자신들의 가능성을 시험해 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여성스러움’으로 족쇄를 채웠다. 이는 작품 속 여성인물이 사회에서 독립된 삶을 살아가 할 때 ‘여자 혼자 사는 건 힘들다.’는 통념이 스스로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더욱 삶의 의지를 잃고 무력하게 된다.

낮선 침입자가 그녀의 방에 침입하려던 일이 있은 후 그녀는 극심한 공포와 함께 무력감을 느낀다. 이후 닫아걸어도 보호받을 수 없을 걸 알지만 ‘문고리를 새로 달고, 그것도 의심스러워 방문에는 두 개를 더’ 단다. 또한 그녀는 ‘두 사람이 눕기에도 비좁은 그런 공간 속에’ 자신을 유폐시킨다. 안전해야 할 집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되고, 언제 또다시 침입자가 들어올지 모르는 좁은 공간 속에서 그녀는 죽음 같은 시간을 보낸다. 작품 속 인물은 그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는다. 내면의 고통을 ‘검은 선글라스’에 가린 채 일상적인 얼굴을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누군지 알 수 없는 무명의 가해자들을 향해 ‘당신

33) Pierre Bourdieu, 김용숙 역, 앞의 책, 88면.

들, 다 죽여버리고 말겠어.’라는 말을 허공에 뱉어낼 뿐이다.

‘목뿔부분까지 단추를’ 채운 블라우스를 입는 행위는 남성의 폭력성에 대한 단호한 거부이자 자기 방어적 표현이다. 이렇듯 그녀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 방어는 자신을 가두고, 세상과의 단절을 초래한다. 이런 의지의 표현은 소극적 저항일 뿐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여성은 남성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악몽』의 여성인물의 성폭력 경험에 대한 해결 방법은 자신에게 폭력을 행한 가해자를 찾아 그를 처단하는 일이다. 『악몽』속의 악몽 같은 밤은 여성인물의 지루한 듯 평온한 일상을 뒤엎어 놓는다. 이제 그녀는 조신하게 피아노 학원 선생으로 있다가 집안 좋은 남자를 만나 시집갈 생각을 놓아버린 상태다. 게다가 소통의 부재는 결국 피해자인 여성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부추긴다. 그리고 여성인물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로 그를 유혹하고 그의 등에 ‘적심가위’를 꽂아 그에게 위해를 가한다. 이렇듯 『악몽』에서는 여성을 온전한 자아가 아닌 성적 욕망의 해소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가해자에게 폭력적 방법으로 복수한다.

『불란서 안경원』과 『악몽』속의 여성들은 성폭력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 경험 후 상처에 대한 치유책을 발견하지 못한다.

성폭력을 형상화한 대부분의 작품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소통의 부재가 존재한다. 『배드민턴 치는 여자』의 주인공은 성폭력을 당한 후 자신의 상처를 좀 더 강한 힘에 의탁하려는 양상을 보인다. 남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성은 자신에게 심한 위해를 가한다. 이는 성폭력의 경험이 비단 육체적 고통만 입은 것으로 끝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육체적 고통 외에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배드민턴 치는 여자』의 주인공은 성폭력 충격 때문에 낮이 나간 상태에 이른다. 발길 닿는 대로 헤매던 그녀는 사방이 막힌 포클레인을 발견하고 ‘손톱이 부서져 달아나고’, ‘정강이가 쇠붙이에 부딪혀 깨지는 소리가 나’고, ‘가슴살이 파여 찢어’져도 그곳에 올라간다. 그녀가 들어간 포클레인의 4면은 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없을 만큼 단단하다.

포크레인 아가리 속엔 지하에서 떠낸 흙이 반쯤 차 있다. 그녀는 후욱, 숨을 몰아쉬며 그 흙 속에 두 발을 꼬옥 묻는다. 뭔가 안심이 된다는 표정이다. 자꾸만 흙을 퍼올려 자신의 무릎을 묻고 허벅지를 묻고 엉덩이를 묻던 그녀는 무슨 생각이 났는지 호오, 웃기까지 한다.³⁴⁾

여성인물은 포클레인의 단단함 속에 자신을 파묻고자 한다. 그 단단함을 무기로 상실된 여성성이 거대한 안전망 속에서 회복되기를 소원하다. 즉 포클레인은 여성의 원초적 순결성이 재생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상징적 공간이다.

남성은 여성의 성과 육체를 남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 치장하는 몸으로 인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은 여성의 남성적 외모에도 그 안에서 여성의 몸을 본다. 『사라진 마녀』에는 남성의 성폭력 때문에 한국사회에서는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는 몸으로 살아가는 여성인물이 등장한다. 그녀의 몸에는 남성들의 가혹한 폭력에 의해 몸에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상처를 몸으로 간직하고 있는 여성인물에게 남성인물은 성폭력이라는 형태로 상처에 또다시 폭력을 가한다.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여성의 역할은 성적 접촉에 있어 적극적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표현하기보다는 수줍게 남성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 통념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남성이 성관계를 요구할 때 여성의 소극적인 거부는 남성에게는 오히려 여성스러운 허용으로 인식된다.³⁵⁾ 남성은 이와 같은 사회적 통념을 근거로 여성의 부정을 소극적 허용이라 해석하고 성행위를 한다.

그러나 여성은 사회적 신뢰를 형성했던 사람에게 당한 성폭력이기에 육체적·정신적으로 치명적인 충격과 상처를 받는다. 서로 아는 사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성폭력은 폭력이 아니라 다소 난폭한 성관계’³⁶⁾로 인식된다. 이와 같은 사회적 통념 때문에 피해자는 더 큰 상처를 받는다. 그러나 『사라진 마녀』속 남성인물은 자신이 환상 속에서 만들어 놓은 인물과 성관계를 원할 뿐 소통은 원하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여성은 결국 자신의 상처를 이해받지 못하고 그의 곁을 떠난다.

34) 이남호 엮음, 앞의 책, 440면.

35) 이미정 외, 앞의 책, 50면 참조.

36) 장영복, 앞의 글, 2면.

결국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진정한 소통에 실패하고 대신 눈으로 여성의 몸을 인식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난다. 어찌 보면 여성을 진심으로 이해해줄 사람을 만난 행복한 결말의 작품으로 읽을 수 있다. 그렇지만 남편의 눈은 그녀의 상처를 볼 수 없는 눈이었기에 그녀의 몸이 잉태가 가능한 몸이 되었던 것이다. 작가가 남편의 눈을 장님으로 설정한 것은 그 또한 정상적인 눈으로 그녀의 몸을 봤다면 진실로 그녀를 이해해주지 않았을 것이란 전제에서 이런 설정이 나왔던 것이라 본다. 여전히 사회는 여성의 몸을 눈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란 전제가 바탕에 내재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1990년대 작품에는 몸의 권리를 침해당한 여성의 경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보려는 의지가 나타나 있다. 작가들은 성폭력 피해 상황에 처한 인물이 자신의 몸에 대한 자각과 함께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여성인물들은 성폭력 경험으로 공포와 소통부재 등을 경험하면서 남성으로 대변되는 사회에 대해 공격성을 띠기도 한다. 이처럼 작가들은 가부장제 사회의 강압적 세계에 길들여지지 않는 여성인물을 창조해냄으로써 기존 가치 체제에 대해 반기를 든다. 지금까지 언급한 작품들에는 90년대 여성 작가의 작품들이 보여준 급진적인 결말과 해결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 결론

1990년대 여성 소설 속 여성인물들은 공적이고 사적인 관계에 상시 존재하는 성적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작품 속 여성인물들은 대부분 성적 위협을 느낄 때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자신의 몸을 지키려 한다. 그러나 그 저항은 부질없는 것으로 치부되며 결국 육체를 훼손당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작품들은 여성이 성적으로 억압을 당했을 때 그 어떤 사회적 보호망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는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과거 여성의 성을 취함에 있어서는 소유의 개념으로 접근했으나, 1990년대 성은 소유의 개념보다 여성의 성을 단순한 유희의 대상으로 본다는 점이 다

르다. 남성들은 성적 욕망 해소의 대상을 여성의 몸으로 삼고, 그들을 힘으로 억압한다. 또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남성들에게는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기제로 작동한다. 이와 같은 관련성을 근거로 여성 소설에서 가해자가 어떤 모습으로 표상되어 왔는지 살펴보았다.

작품들은 여성이 어떤 관계 맺음에도 폭력으로부터 결코 안전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여성의 일상은 항상 폭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외출마저 안전하지 않아 오히려 자신의 방에 갇혀 있다. 작가들은 남성의 파괴된 인간상을 도시공간 안에서 여성에게 성폭력을 행사하는 인물을 통해 재현한다. 그리고 인물들 사이에 존재하는 소통의 부재를 짚어낸다. 작가들은 남성들의 소통 방식이 자신들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폭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과거 성폭력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역사 속 침략국가와 속국의 의미로 해석하려 했다. 그러나 90년대는 거대 담론에 의한 주체의 폭력 보다는 경제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경쟁에서 밀려난 남성들이 자신들의 존재 확인을 위해 행하는 몸짓으로 봐야할 것이다. 90년대 여성문학을 사적문학이라 비판하지만 본고에서 논한 작품들은 개인적 소재를 통해 현대 사회에 내재해 있는 폭력에 관한 문제를 짚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작가들은 급진적 치유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여성 인물들을 정체성은 포기하지 않는 인물로 그려냈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남겨 놓았다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폭력에 의해 강제로 훼손된 여성의 몸에 대해 그려낸 작품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90년대 여성 작가 작품의 또 다른 측면을 조명해보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했다. 성폭력이 재현된 작품을 중심으로 강간통념이 남성들의 의식에 내면화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1990년대 사회적 상황과의 연관 속에서 이해하고자 했다. 또한 작품에 재현된 성폭력 사건과 인물의 재현 양상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남녀의 인식 차이가 성폭력을 발생하게 만들었음을 분석해보고자 했다. 그리고 그 인식 차이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권력관계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작품을 통해 규명해 보고자 했다.

〈참고문헌〉

- 권지예, 「사라진 마녀」, 『꿈꾸는 마리오네뜨』, 창작과비평사, 2002.
- 이남호 엮음, 「배드민턴 치는 여자」, 『옛우물에서의 은어낚시』, 작가정신, 2004.
- 조경란, 「불란서 안경원」, 『불란서 안경원』, 문학동네, 1997.
- 하성란, 「악몽」, 『옆집여자』, 창작과비평사, 1999.
- 김양선, 『허스토리의 문학』, 새미, 2003.
- 박애경, 「가정폭력의 실태와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2006.
- 변혜정, 「성폭력 피해구성과 그 의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04.
- 이건호, 강혜자, 「강간통념 수용도 성역할 태도 및 음란물 접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1권 3호, 2005.
- 이미정 외, 「청년층 섹슈얼리티와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009.
- 이석재, 「강간통념척도의 개발과 타당성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13권 2호, 1999.
- 이석재, 최상진, 「강간통념수용도에 따른 성행동, 성폭력 및 성폭행 사건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15권 1호, 2001.
- 이현정, 「성폭력범죄의 양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010.
- 장영복, 「성폭력의 실태와 그 대책」, 『상담과 선교』, 2권 4호, 1994.
- 정인경, 「성폭력과 성적 차이의 페미니즘」, 『페미니즘 역사의 재구성-가족과 성욕을 둘러싼 쟁점들』, 공감, 2003.
- Aleida Assmann, *Erinnerungsraume : Formen und Wandlungen des kulturellen Gedachtnisses*, 『기억의 공간: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변학수·채연숙 역, 그린비, 2011.

- Brownmiller, S., *Against Our Will: Men, Women and Rape*, 『성폭력의 역사』, 편집부 역, 일월서각, 1990.
- Pierre Bourdieu, *La Domination Masculine*, 『남성 지배』, 김용숙 역, 동문선, 2003.
- Georges Vigarello, *Histoire du viol*, 『강간의 역사』, 이상해 역, 당대 2002.
- S. Walby, *Theorizing Patriarch*, 『가부장제 이론』, 유희정 역, 이대출판부, 1996.
- Yi-Fu Tuan, *Space and Place*, 『공간과 장소』, 구동희 · 심승희 역, 대운, 1995.

【국문초록】

이 글은 1990년대라는 시대적 변화가 사람들의 인식구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전제하에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분석한다. 특히 여성의 성폭력 피해를 다룬 소설에서 남성인물들의 의식에 작용하는 원인을 시대적 상황과의 연장선에서 찾으려는 시도이다. 또한 성폭력 경험 이후에도 여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실 극복의 가능성을 찾고자 했다.

1990년대 후반에 발생한 경제 불황 등이 사회전반에 무기력증을 양산했을 것이란 전제하에 작품에 접근한다. 여성작가들의 작품에 등장하는 가해자들은 계층에 상관없이 도덕의식이 결여된 인물들로 재현되고 있다. 이는 90년대 경제논리가 지배하는 시대에 경쟁에서 밀려난 남성들이 자신들의 존재 확인을 위해 성폭력을 행사한다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여성의 몸은 유희의 대상일 뿐이다.

가해자들은 성폭력을 자행함에 있어 각인된 통념을 근거로 대상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때 여성은 성폭력 상황에 대해 극심한 공포를 느낀다. 여성들은 가해자의 행위를 멈추게 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지만 남성과 여성사이의 권력관계는 소통의 부재를 초래할 뿐이다. 이처럼 폭력 상황 속에서 여성의 정체성이 유린되는 과정과 이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 탐색했다.

주제어 : 성폭력, 강간통념, 표상, 치유, 권력관계, 여성소설

【Abstracts】

A Study on the Reproduction Patterns of Sexual Violence in Novels

—With a focus on short stories by female writers in the 1990s

Kim, Mi-Young

On the premise that the changes of the 1990s had impacts on people's conscious structure, this study set out to analyze works written by female writers as an attempt to identify the causes working on the consciousness of male characters in novels on women's cases of sexual violence in connection with the situations of the times. The study also aimed to find the possibility of overcoming reality in that women refused to give up on their identities even after going through sexual violence.

The investigator approached those works on the premise that the recession in the latter half of the 1990s caused lethargy to spread across society. In works written by female writers, offenders are reproduced as characters without any moral consciousness regardless of social classes, which can be understood from the perspective that men, who were thrown out of competition in the 1990s dominated by the economic logic, commit sexual violence in order to confirm their existence. In such cases, the female body is nothing but the object of play.

Offenders make immediate responses to their objects based on the carved myth when committing sexual violence. Women feel extreme fear

about the situation of sexual violence at the moment. They even try to engage in conversations with their offenders in order to stop them from doing the act, but the power relationships between man and woman only lead to the absence of communication. The study examined the process of female identity being violated in such violent situations and the efforts the female victims made for healing.

Key words : sexual violence, rape myth, representation, healing, power relationship, women's novel

이 논문은 2012년 12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3년 2월 4일에 심사 완료되어 2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